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GPPAC, 제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성명 발표
날 짜 2019. 2. 25. (총 5 쪽)

보 도 자 료

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

제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성명 발표

대북 제재 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촉구
한국 전쟁 종식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로 이어지길 기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 강조

1. 오늘(2/25) 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은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한다>를 발표했다.
2. GPPAC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북미 양국이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GPPAC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은 한반도에 불가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3. GPPAC은 2003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무장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설립을 제안하여 2005년 공식적으로 발족한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다. GPPAC은 15개의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평화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사무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있으며, 참여연대는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4. 이들은 해당 성명을 주 유엔 북한, 미국, 한국 대표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주일 미국대사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끝.

▣ 붙임1. 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 성명 (국문)

▣ 붙임2. 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 성명 (영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한다

다가오는 2월 27일 ~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은 역사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시민들을 비롯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대화 국면을 만들어온 모든 이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더불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민간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합의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북일 관계 정상화를 포함하여 북한과 이웃 국가들의 관계 개선도 촉진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우리는 북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과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비핵화의 각 단계는 국제법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평화와 안보를 위한 지역 메커니즘의 발전과 상호 신뢰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상들 간의 합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될 수 있다. 정상회담의 합의를 유지하고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민간 교류 재개와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각각의 사회 공동체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과 공동, 협력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한반도에 불가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2월 25일

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

Statement Welcoming the DPRK-US Hanoi Summit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February 25, 2019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a global network of civil society peacebuilding organisations, welcomes the historic convening of the Second DPRK-US Summit in Hanoi, Viet Nam on February 27-28. Following on from the meeting of the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United States (US) in Singapore in June, 2018, this is an important next step to ensure that diplomatic efforts are made to proceed with the peace process for the Korean Peninsula. We recognise and applaud the efforts of those who have enabled this environment for peace and dialogue, including those of the government and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We strongly hope that this upcoming Summit will result in detailed, concrete steps, including specifically a deal to finally put an end to the Korean War.

We call on the United States to take steps towards lifting of sanctions - particularly those which are proving obstacles t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cluding the reopening of joint Korean initiatives such as the economic zone at Kaesong, tourism and exchange at Mount Kumgang, and other civil exchange activities. The Summit should also make steps towards the normalis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ncluding concrete initiativ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eciprocal liaison offices. This will in turn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its regional neighbours, including the normalis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Japan.

The Summit must also result in concrete and detailed measures towards th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a roadmap of steps to be taken by both

parties. Such steps towards denuclearisation should be grounded in international law. We advoca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 Weapons-Free Zone (NWFZ) in Northeast Asia, which would greatly contribute to confidence building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mechanisms for peace and security.

Agreements made by governments can be delayed or impacted by various factor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results of the summit are sustainable and fully implemented, we also hope that each government will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 resumption of civil exchange, and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in the peace process. Such participation will ensure that the respective societies can work towards the vision of pursuing a common, cooperative security, and building peace not only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the broader Northeast Asian region. A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working to build peace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we pledge to make all efforts to support this peace process, and ensure that it continues to move forward, towards bringing about a genuine, irreversible and sustainable peace for Korea and for the world.